

곡성 동악산 청류구곡(清流九曲)의 형태 및 의미론적 특성*

노재현* · 신상섭* · 허준* · 이정환** · 한상엽***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우석대학교대학원 조경토목공학과 · ***(유)한백종합건설 조경팀

Characteristic on the Layout and Semantic Interpretation of Chungryu-Gugok, Dongaksan Mountain, Gokseong

Rho, Jae-Hyun* · Shin, Sang-Sup* · Huh, Joon* · Lee, Jung-Han** · Han, Sang-Yub***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Woosuk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baek Construction co., Ltd.

ABSTRACT

The result of the research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semantic value and the layout of the Cheongryu Gugok of Dorimsa Valley, which exhibits a high level of completeness and scenic preservation value among the three gugoks distributed in the area around Mt. Dongak of Gogseong is as follows.

The area around Cheongryu Gugok shows a case where the gugok culture, which has been enjoyed as a model of the Neo-Confucianism culture and bedrock scenery, such as waterfall, riverside, pond, and flatland, following the beautiful valley, has been actually substituted, and is an outstanding scenery site as stated in a local map of Gokseong-hyeon in 1872 as “Samnam Jeil Amban Gyeryu Cheongryu-dong(三南第一巖盤溪流 清流洞: Cheongryu-dong, the best rock mooring in the Samnam area).” Cheongryu Gugok, which is differentiated through the seasonal scenery and epigrams established on both land route and waterway, was probably established by the lead of Sun-tae Jeong(丁舜泰, ?~1916) and Byeong-sun Cho(曹秉順, 1876~1921) before 1916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However, based on the fact that a number of Janggugiso(杖履之所) of ancient sages, such as political activists, Buddhist leaders, and Neo-Confucian scholars, have been established, it is presumed to have been utilized as a hermit site and scenery site visited by masters from long ago. Cheongryu Gugok, which is formed on the rock floor of the bed rock of Dorimsa Valley, is formed in a total length of 1.2km and average gok(曲) length of 149m on a mountain type stream, which appears to be shorter compared to other gugoks in Korea. The rock writings of the three gugoks in Mt. Dongak, such as Cheongryu Gugok, which was the only one verified in the Jeonnam area, total 165 in number, which is determined to be the assembly place for the highest number of rock writings in the nation. In particular, a result of analyzing the rock writings in Cheongryu Gugok totaling 112 places showed 49pieces(43.8%) with the meaning of ‘moral training’ in epigram, 21pieces (18.8%) of human life, 16pieces(14.2%) of seasonal scenery, and 12pieces(10.6%) of Janggugiso such as Jangguchur(杖履處), and the ratio occupied by poem verses appeared to be six cases(3.6%). Sweyeonmun(鎖烟門), which was the first gok of land route, and Jesiinganbyeolyucheon(除是人間別有天) which was the ninth gok of the waterway, corresponds to the Hongdanyeonse(虹斷烟鎖) of the first gok and Jesiinganbyeolyucheon of the ninth gok established in Jaecheon, Chungbuk by Se-hwa Park(朴世和, 1834~1910), which is inferred to be the name of Gugok having the same origin. In addition, the Daeunbyeong(大隱屏) of the sixth gok. of land route corresponds to the Chu Hsi’s Wuyi-Gugok of the seventh gok, which is acknowledged as the basis for Gugok Wollim, and the rock writings and stonework of ‘Amseojae(巖棲齋)’ and ‘Pogyongjae(抱經齋)’ between the seventh gok and eighth gok is a trace comparable with Wuyi Jeongsa(武夷精舍) placed below Wuyi Gugok Eunbyeon-bong, which is understood to be the activity base of Cheongryu-dong of the Giho Sarim(畿湖士林). The rock writings in the Mt. Dongak area, including famous sayings by masters such as Sunsaehuje(鮮史御帝, Emperor Gojong),

* 본 연구는 2014년 곡성군에서 발주하고 (사)전통조경학회에서 수행한 「동악산 일원 구곡 학술조사」 용역의 일부 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Shin, Sang-Sup,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 Urban Design, Woosuk Univ., Jeonbuk Samye 565-806, South Korea, Phone: +82-290-1492, E-mail: ssshin@woosuk.ac.kr

Bogahyowoo(保家孝友, Emperor Gojong), Manchunmungywol(萬川明月, King Joengjo), Biryebudong(非禮不動, Chongzhen Emperor of the Ming Dynasty), Samusa(思無邪, Euijong of the Ming Dynasty), Baksechungwoong(百世清風, Chu Hsi), and Chungryususuk-Dongakpungkyung(清流水石 動樂風景, Heungseon Daewongun) can be said to be a repository of semantic symbolic cultural scenery, instead of only expressing Confucian aesthetics. In addition, Cheongryu Gugok is noticeable with its feature as a cluster of cultural scenery of the three religions of Confucianism-Buddhism-Taoism, where the Confucianism value system, Buddhist concept, and Taoist concept co-exists for mind training and cultivation. Cheongryu Gugok has a semantic feature and spatial character as a basis for history and cultural struggle for the Anti-Japan spirit that has been conceived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utilizing the spirit of the learning, loyalty for the Emperor and expulsion of barbarians, and inspiration of Anti-Japan force, by inheriting the sense of Dotong(道統) of Neo-Confucianism by the Confucian scholar class at the end of the Joseon era that is represented by Ik-hyun Choi(崔益鉉, 1833~1906), Woo Jeon(田愚, 1841~1922), Woo-man Gi(奇宇萬, 1846~1916), Byung-sun Song(宋秉璿, 1836~1905), and Hyeon Hwang(黃玟, 1855~1910).

Keyword: Valley of Dorimsa, Letters Carved on the Rocks, Janggujiso, Gugok-Wonlim, Scenic Sites

국문초록

동악산 청류구곡 일원은 아름다운 계류를 따라 와폭(臥瀑)과 담(潭), 소(沼), 대(臺) 등의 암반경관과 성리문화의 전형으로 향유되어온 구곡문화가 실증적으로 대입된 사례로, 1872년 곡성현 지방도에서 “삼남제일암반계류 청류동(三南第一巖盤溪流 清流洞)”으로 명기된 바와 같이 풍치가 탁월한 승경처임을 보여준다. 경물(景物)과 경구(警句)가 육로와 수로에 쌍으로 설정되어 차별성을 갖는 청류구곡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이전, 정순태와 조병순의 주도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성리학자들은 물론 불교지도자, 독립운동가 등 선현들의 장구처 등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명인(名人)들의 산수탐방과 은일처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림사계곡의 기반암 암상에 구성된 청류구곡은 산지형 하천으로 총 길이 약 1.2km, 평균 곡거리 149m로 국내 여타 구곡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증된 동악산 3개 구곡의 바위글씨는 총 165건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바위글씨의 집결지로 판단된다. 특히 112개소로 집계된 청류구곡 바위글씨의 내용 분석 결과, ‘수신(修身)’의 의미가 49점(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명’ 21건(18.8%), ‘경물’ 16건(14.2%), 장구처(杖履處) 등 장구지소 12건(10.6%) 등이었고 ‘시구(詩句)’가 차지하는 비율은 6건(3.6%)으로 나타났다. 육로상의 제1곡 쇄연문과 수로상의 제9곡 제시인간별유천(除是人間別有天)은 박세화(朴世和)가 충북 제천에 설정한 용하구곡(用夏九曲)의 제1곡 홍단연쇄(虹斷烟鎖) 및 제9곡 제시인간별유천과 일치하는 것으로 동일한 시원(始原)을 갖는 구곡명으로 유추된다. 또한 육로상 제6곡 대은병(大隱屏)은 주자 무이구곡의 제7곡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곡원림의 거점으로 인식되며, 7곡과 8곡 사이의 ‘암서재(巖棲齋)’와 ‘포경재(抱經齋)’ 바위글씨와 석축 흔적 등은 무이구곡 은병봉 아래 무이정사와 비견되는 것으로, 기호사립의 청류동 활동거점으로 파악된다. 선사어제(鮮史御帝), 보가효우(保家孝友, 고종), 사무사(思無邪, 명나라 의종), 백세청풍(百世清風, 주자), 청류수석 동악풍경(홍선 대원군) 등 명인들의 명구들이 망라된 동악산 구곡은 높은 유가미학적 가치를 표출함은 물론 의미론적 상징문화경관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청류구곡은 수심양성을 위한 유가적 가치체계와 불교 및 도교적 관념 등이 공존하는 유불선(儒佛仙) 3교 문화경관의 결집체로 특성이 부각된다.

청류구곡은 최익현(崔益鉉), 전우(田愚), 기우만(奇宇萬), 송병선(宋秉璿), 황현(黃玟) 등으로 대변되는 조선 후기 사림계층이 성리학의 도통의식을 계승하고 ‘위정척사’와 ‘존왕양이(尊王攘夷)’, ‘항일의지 고취’ 등의 수단으로 설정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배태(胚胎)된 항일 역사문화 항쟁의 거점으로서 장소성과 의미론적 특성에 충실하다.

주제어 : 도림사계곡, 바위글씨, 장구지소, 구곡원림, 명승

1. 서론

중국 남송시대 주자(朱子, 1130~1200)로부터 연원(淵源)된 무이구곡의 구곡문화(九曲文化)는 조선조 유학자들에게 도학(道學)의 가르침을 일깨어 주는 성리문화(性理文化)의 전범

(典範)으로 널리 전파되고 또 향유되어 왔다(Rho, 2009). 구곡은 주역의 구오(九五)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임금의 자리 [天子]’를 말하는 동시에 만물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원만하고 활발하게 작용함으로써 천하를 으뜸으로 잘 다스리는 상황을 표현한 괘(卦)이며(Lee, 2014: 44), Choi(2004: 138)의 견해를 빌면 인간의 내면적인 사고를 자연의 특질에 의탁한

실체이기도 하다. 구곡으로 설정된 계곡 및 하천은 뛰어난 자연경관일 뿐 아니라 설정자의 유가미학적(儒家美學的) 정신이 오롯이 반영된 문화경관으로, 최근 자연 및 문화경관이 복합된 '구곡원림(九曲園林)'을 산수정원의 장르(genre)로 까지 인식하는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경승지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에 설정된 구곡이 속리산권과 영남지역에 집중 형성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에서는 지역의 구곡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 '문화재 지정 건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민간 활동', 그리고 '구곡 관련 서적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과 보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ho, et al., 2014). 특히 2014년 6월 충북 괴산의 화양구곡은 우리나라 구곡 중 가장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4년 8월에는 용하구곡이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https://www.cha.go.kr>). 그러나 구곡원림의 형성 및 향유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호남권역에서는 구곡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단지 Rho(2011)가 임실과 진안에 걸쳐 설정된 이산구곡(驛山九曲)과 마이승경(馬耳勝景)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명승자원조사의 일부로 무주 무계구곡(武溪九曲)을 기술한 것을 제외하고 구곡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하다. 2013년까지 관련 학회에서조차 전라남도권 소재 구곡의 존재가 알려진 바 없었다. 단지 곡성의 향토사학자 Park의 『도채위경(2007)』과 『천간지비(天慳地秘) 동악산(2010)』 저술에서 처음으로 곡성 동악산에 3개 구곡이 현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지만 구곡 설정의 배경 등에 대해 곡성 지역에서조차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¹⁾.

본 연구는 곡성 동악산 일원에 분포하는 3개 구곡 중 완성도와 경관적 보존가치가 높은 청류구곡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경관의 유산적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새로운 콘텐츠(contents)로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청류구곡과 관련 바위글씨의 실체를 확인하고, 구곡 배치 형태 및 의미론적 특성 등을 조망함으로써 동악산 도립사계곡 일원의 명승적 가치에 대한 내적 고양(高揚)과 충일(充溢)을 기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동악산 일원 일명 도립사계곡 또는 청류동(淸流洞)계곡(Figure 1)에 설정된 구곡 및 바위글씨로, 본 조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에 걸쳐 총 5차례의 현지답사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범위는 도립사 입구 월봉교차로에서부터 월봉계곡 길상암 갈림길 상

부 표고 300m 지점의 월봉천 구간상의 좌우 약 20m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Layout of Gugok in Mt. Dongak
(Sources: Earth, Google)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첫째 동악산의 지명유래 및 전래경관 요소 고찰, 둘째 향토사학자와 지역 주민의 현장안내 등 자문을 통한 『천간지비 동악산』 저술에 담긴 구곡현장 확인과 위치 정보 파악, 셋째 구곡의 배치형태 등에 따른 배치 형태 및 의미론적 특성 구명, 넷째 바위글씨 주체 및 관련 인물 추적 및 탐구를 통한 청류구곡 의미론적 해석 등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그리고 곡성 향토사학자 박혜범 및 월봉리와 구원리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는 지역향토지와 유산기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소장 고지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영역의 지역성, 경관 및 장소성 등을 살피고 구곡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서론에서 언급한 Park의 『도채위경(2007)』 『천간지비 동악산(2010)』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였다.

현장연구는 조사범위내 상하 100m 권역 경물과 바위글씨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GPS측정기(좌표계: WGS84)를 통해 구곡 바위글씨를 기점으로 위치정보를 측정하였다. 이때 국립지리정보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항공사진자료(좌표계: TM 한국중부원점)를 바탕으로 ArcGIS10.0을 사용하여 '구곡'이 각자(刻字)된 바위글씨의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다음(Daum) 위성지도상 및 1:25,000 수치지형도 3D 지도상에 구곡 위치를 표시하였다. 더불어 위성지도에 곡별 위치를 비정하고 응용 프로그램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곡간 거리를 측정하고 구곡 분포도면을 작성하였다. 구곡명과

바위글씨 내용은 물리적 경관대상을 지칭하는景物(景物)과 마음 그리고 행실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수신(修身) 또는 수양(修養) 등 성리학적 가르침을 지칭하는 경계의 의미인 경구(警句)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동악산의 문화경관

곡성읍에 우뚝 솟아 곡성별관을 굽어보고 있는 동악산(736.8m)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률에 맞춰 춤을 추다 오늘 날의 산세를 갖췄다”는 전설로 유명하며 천상의 노래, 즉 음악이 울린다(동한다)는 전설이 깃들여 있다. 산자락에는 원효대사가 창건, 도선국사가 중건한 도림사가 있으며 계곡 곳곳에 아기자기한 폭포와 담(潭)과 소(沼)를 빚어내고 있다. 특히 “삼남제일암반계류 청류동(三南第一巖盤溪流 清流洞)”이란 어구는 계곡 풍광이 탁월한 동악산의 승경을 축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Gokseong-Gun, 2014). 이곳 도림사계곡은 2009년 ‘양양 하조대(襄陽 河趙臺, 명승 제69호)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되었으나 도림사 등의 일부 반대 의견으로 명승 지정이 보류된 곳이기도 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악산을 “현의 서북쪽 4리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하였으며 『동국여지』에서는 “현의 서북쪽 4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일명 안산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지도서』에서는 “옥과 설산에서 나와 현의 주맥을 이루었다. 현의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되고 있으며 『대동지지』에서는 “일명 안산이라고도 부르며, 서쪽으로 10리 되는 옥과와 경계이다.”라고 하였다. 안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도 “설산으로 기재되며 현의 동쪽 15리 지점에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다. 곡성의 진산인 동악산은 크게 두 산괴(山塊)가 남북으로 놓여 두 산괴 사이의 고개를 ‘배넘어재’라 부른다(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0). 특히, 곡성팔경의 제1경 ‘동악조일(動樂朝日)’과 제2경 ‘도림효종(道林曉鐘)’은 각각 동악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저녁 무렵 들려오는 도림사의 종소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오늘날 동악산 등산로는 4개 코스가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코스이든 도림사와 배넘어재 그리고 동악산과 형제봉을 지나는 코스로 구성되고 있음을 볼 때 도림사계곡은 동악산에서 매우 중요한 경관 통로이자 거점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제작된 동여도, 청구도 그리고 팔도지도에는 곡성현 서쪽의 동악산이 강조되었으며, 호남읍지를 비롯하여 해동지도·광여도·지승·비변사인방안지도 그리고 동여비고 등 군현도에서는 동악산과 형제봉, 도림사가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다. 한편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를 겪은 후인 1872년



Figure 2. Chungry-Dong and Suhgea-Dong in Old map
Source: <http://e-kyujanggak.snu.ac.kr>

에 대원군의 지시로 1872년에 제작된 곡성현 군현도(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에서는 형제봉과 동악산 정상 사이의 해넘이재가 강조되어 있으며, 아래로 도림사를 비롯하여 신덕암과 길상암이 묘사되고 있다(Figure 2).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청류동’과 ‘서계동(西溪洞)’이 뚜렷이 기재되고 있으며 청류동에는 “반석청류위읍승지(盤石清流爲邑勝地)”, 그리고 서계동에는 “수석청절학사 최치원유상(水石清絕學士 崔致遠遊賞)”이란 글귀가 명기되어 있는 점이다. 즉 고지도의 “반석청류위읍승지”는 1861년(崇禎 紀元後四辛酉)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이 청류구곡 제4곡인 단심대 와폭(臥瀑)에 썼다고 알려진 “청류수석 동악풍경(清流水石 動樂風景)”의 문맥과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2. 청류구곡의 포치

1) 설정자 및 구곡명

청류구곡은 Park(2007)의 주장과 같이 바위에 함께 새긴 관지(款識)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지역 유림인 춘기(春沂) 정순태(丁舜泰, ?~1916)²⁾와 하정(荷亭) 조秉순(曹秉順, 1876~1921)³⁾에 의해 음각(陰刻)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시기는 최소한 정순태의 생몰(生沒)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인 1916년 이전에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몇 개의 곡(2곡 무태동천, 8곡 해동무이)은 이미 설정된 경물에 곡명(曲名)을 추가하여 석각(石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원효계곡에 설정된 원계구곡 또한 이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류구곡의 경구로 구성된 구곡은 도림사계곡의 기반암 암상을 활용하였지만 경물로 된 육로상의 9곡은 계곡과 주변의 암반 등 지형경관을 활용하여 구곡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와 같이 육로상의 8개곡은 ‘곡 번호 붙이기(numbering)’가 경물명과 함께 부기(附記)되고 있는데 유독 단심대 만은 ‘사곡(四

곡)'이라는 넘버링이 누락되어 있다. 한편 수로상의 구곡 중 제7곡은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제4·5·8·9곡의 주제어[경구]는 구곡 숫자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정황상 연구진이 최종 추정된 것이다.

2) 위치 정보

문헌조사 및 인터뷰 그리고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청류구곡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였다. Figure 3은 다음(Daum) 지도를 바탕으로 청류구곡의 위치를 비정(比定)한 결과이다. 구곡 표시 바위글씨를 기점으로 측정하고 3차례 반복 측정한 뒤 내업(內業)을 통해 오차를 보정한 뒤 최종 확정된 청류구곡 육로와 수로의 구곡 좌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oordination of Gugok in Mt. Dongak

	경물(景物)		경구(警句)	
1곡	E 35° 15' 48.4"	N127° 15' 51.8"	E 35° 15' 48.4"	N127° 15' 45"
2곡	E 35° 15' 51.8"	N127° 15' 44.6"	E 35° 15' 51.9"	N127° 15' 44."
3곡	E 35° 15' 57.57"	N127° 15' 39.0"	E 35° 15' 58.2"	N127° 15' 40."
4곡	E 35° 15' 59.3"	N127° 15' 33.9"	E 35° 15' 59' 0"	N127° 15' 35"
5곡	E 35° 16' 01.3"	N127° 15' 30.3"		
6곡	E 35° 16' 03.3"	N127° 15' 26.6"	E 35° 16' 03.5"	N127° 15' 28"
7곡	E 35° 16' 05.4"	N127° 15' 24.6"		
8곡	E 35° 16' 07.9"	N127° 15' 22.4"		
9곡	E 35° 16' 10.6"	N127° 15' 17.3"		

3) 구곡 경관상과 주요 바위글씨

청류구곡의 각 곡별 위치와 경관상은 Figure 4에, 곡별 바위글씨 이미지는 Figure 5에 그리고 곡별 의미 및 관련 관지(款識)는 Table 2에 종합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류구곡은 도립사를 기점으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며 설정되어 있는데 여타 구곡과 달리 물길에는 경구를, 육로에는 경물을 주제어로 한 2중 구조로 설정된 특징을 보인다. 대부분 수로상의 경관은 초점경관 또는 위요경관적 특성을 보이는데 반해 육로상의 조망경관은 대부분 암벽을 경관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지형경관 또는 초점경관적 특성이 강하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곡 쇄연문과 제9곡의 소도원 또는 제시인간별유천(除是人間別有天)[모름지기 인간 세상의 별천지]은 충북 제천에 의당(毅堂) 박세화(朴世和, 1834~1910)가 설정한 용하구곡(用夏九曲)의 제1곡 '홍단연쇄(虹斷煙鎖)[무지개는 끊어지고 안개가 감싼 곳]'와 제9곡 '제시인간별유천'과 흡사하다. 그 이유는 주자(朱子)의 '무이도가(武夷棹歌)' 제1곡 승진동의 "홍교일단무소식(虹橋一斷無消息)"과 제 9곡 신촌시의 "제시인간별유천" 경물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수로상의 제2곡으로 너럭바위에 새긴 '영과후진(盈科後進) 방호사해(放乎四海)'는 '도덕적으로 수양이 된 군자는 주위 환경과 유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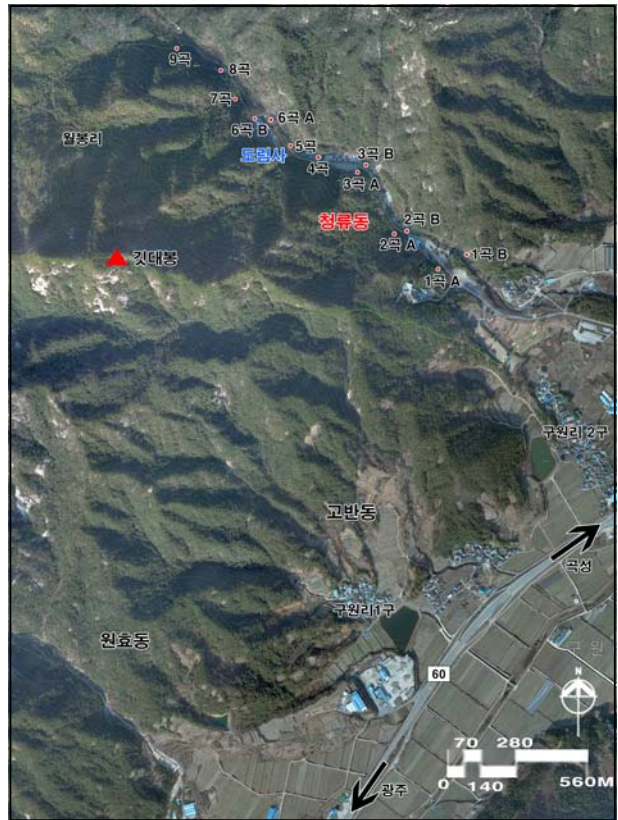


Figure 3. Distribution of Chungryu-Gugok (Sources: Daum map) A: landway, B: waterway

에 쉽게 동요되지 않으며 나갈 바를 분명히 한다.'는 뜻으로 『맹자』 「진심장구(盡心章句)」 상편에서 출전한다. 이 시점은 동악산(736.8m) 연봉 중 하나인 567m 고지가 처음으로 시지각되는 곳이기도 하며 바로 아래에는 동악산 바위글씨 중 예술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무사'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다. 육로상에 설정된 제3곡 대천벽(戴天壁)은 '하늘을 머리에 인 벼랑'이란 의미로 주자의 「행시무이정사(行視武夷精舍)」 시에서 출전한 것으로 '성리학의 학통 계승'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보인다. 이곳은 일명 '석림(石林)'으로 불리는 곳으로 크고 작은 암괴들이 도열하여 석총(石叢)을 이루었으나 2014년 도립사측의 주차장 확장공사로 일부 암괴의 교란 및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곳에는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1852~1919)의 어필로 전하는 '보가효우 청류동 주연서우석어당(保家孝友 淸流洞 珠淵書于昔御堂)'이라는 바위글씨와 오얏꽃 문장이 함께 새겨져 있어 조선 왕실과의 관련성을 알리고 있다. 이밖에 괴산 화양구곡 제5곡 침성대(瞻星臺)에서도 발견되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 1611~1644)의 글인 '비례부동(非禮不動)' 바위글씨와 퇴계 이황의 근모각(謹摸刻)으로 표시된 '징분질옥(懲忿窒慾)' 등의 성리학적 경구로 보이는 다수의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다.

도립사와 인접하여 설정된 수로상의 제4곡 단심대(丹心臺) 인근 하상은 도립사계곡 중 가장 폭이 넓은 곳으로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의 단심가(丹心歌)가 새겨져 있으며, 외곽 사면에는 1861년 흥선대원군(1820~1898)의 필적으로 전해지는 “청류수석 동악풍경(清流水石 動樂風景)[승정기원후사 신유 춘화회은희제(崇禎紀元後四辛酉 春和華隱戲題)]”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다. 도립사 전면에 설정된 제5곡 요요대(樂樂臺)는 『논어』 「용야(雍也)편」에 나오는 글로서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함(樂山樂水)”이라는 의미로, 산수유상과 학문 수양의 즐거움을 표출하는 청류구곡의 중심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립사 후면에 위치하는 육로상의 6곡 대은병(大隱屏)은 주자 무이산의 은병봉(隱屏峯)이나 율곡 이이가 해주 석담천(石潭川)에 설정한 고산구곡(孤山九曲)의 거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모방한 표제어로서 인식된다. 그 앞의 계곡에는 수로상 6곡으로 추정되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을 비롯하여 ‘만천명월(萬川明月)[주인옹자서(主人翁自序)]’, ‘광풍제월(光風霽月)’ 등의 바위글씨가 주목된다. 한편 7곡과 8곡 사이에 음각된 ‘암재재(巖棲齋)’와 ‘포경재(抱經齋)’ 바위글씨는 무이구곡 제5곡 은병봉 아래 무이정사(武夷精舍)와 비견되는 흔적으로 청류동 주자학파의 거점으로 추론된다 (Park, 2010). 특히 암재재는 기호학과 주자학의 영수인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은거한 화양구곡(華陽九曲) 제4곡 금사담(金沙潭)에 세운 서재와 동일한 당호(堂號)여서 주목된다. 이곳은 현재 대나무로 뒤덮여 있으나 2단의

석축(石築) 흔적을 볼 때 비교적 넓은 대지가 형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제8곡 해동무이는 도립사 계곡에서 가장 경관이 탁월한 곳으로 기반암 암상이 외곽을 이루며 상단에 가로 4.5m, 높이 2.2m의 와우석(臥牛石)에 “팔곡 해동무이(八曲 海東武夷)”, “조서산 동강장구처(曹西山 東岡杖履處)”라고 세로로 쓰여 있다. 하상 너럭바위는 물론 석벽과 인근 바위에는 ‘중류지주 백세청풍(中流砥柱 百世清風)’을 필두로 ‘전간재(田良齋)·정소송(鄭小松)·삼선생장구처(三先生杖履處)’, ‘황매천진사장구처(黃梅泉進士杖履處)’ 등 다수의 장구처 표식과 경구가 빼곡히 쓰여져 있다(Table 3 참조). 그리고 육로상 9곡 소도원과 ‘제시인간별유천’은 이곳 청류계곡이 결국 작은 무릉도원으로서의 별천지이자 이상세계임을 암시한다.

Table 2에서와 같이 육로에 설정된 구곡 경물 중 7개소는 문(門, 1회), 동천(洞天, 1회), 벽(壁, 1회), 대(臺: 3회), 병(屏, 1회) 등 지형경관적 요소로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해동무이(海東武夷), 도원(桃園) 등으로 곡 구성의 일관성이 낮아, 관지에 나타난 설정자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주체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획 설정된 구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동무이’라 새겨진 와우석에 함께 표시된 ‘조서산(曹西山)’은 곡성향토 지리지 문행(文行)편에 따르면 청류구곡 설정자 조병순의 조부(祖父)인 서산(西山) 조형익(曹衡錫, 1800~1860)으로 서산 생존 시기에 이미 경물명이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함께 병기된 ‘동강(東岡) 김진호(金晉濩, 생몰미상)’ 또한 구곡 설정이나 최소 향유자로서 일정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

Table 2. Designation and Meaning of Chungryu-Gugok

구분	구곡명(주제어)	의미해석	주변 관지(款識)
1곡	O 1곡 쇠연문(鎖烟門)	연기가 잠기는 문,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조선을 구하는 문	춘기(春沂) 하정(荷亭)
	M 1곡 도채위경(淘採爲耕)	논밭을 갈아엎듯 인재들을 육성하자	성사심제(性師心弟)
2곡	O 2곡 무태동천(無太洞天)	무극과 태극이 같은 하늘을 이루는 동천(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신선세계)	□□ □재(□□ □齋)
	M 2곡 영과후진(盈科後進) 방호사해(放乎四海)	도덕적으로 수양이 된 군자는 주의의 환경과 유희에 쉽게 동요되지 않고 나갈 바를 분명히 함	춘기(春沂) 정순태(丁舜泰), 하정(荷亭) 조병순(曹秉順)
3곡	O 3곡 대천벽(戴天壁)	하늘을 머리에 인 비랑(임금을 받드는 벽)	춘기(春沂) 하정(荷亭)
	M 3곡 산구절계 연소차중반(神山九折溪沿泝此中半)	신령한 산 아홉 구비를 물을 따라 올라가는 중간쯤	후학 정순태 조병순 근송자(後學丁舜泰 曹秉順 謹誦)——주자시(朱子詩)
4곡	O 단심대(丹心臺)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성스런 마음을 담는 대	춘기(春沂) 하정(荷亭)
	M 빙청옥결(冰清玉潔, 추정)	얼음같이 맑고 옥처럼 깨끗하라	춘기(春沂) 하정(荷亭)
5곡	O 5곡 요요대(樂樂臺)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는 대	춘기(春沂) 하정(荷亭)
	M 학구성현 연비어학(學求聖賢 鳶飛魚躍, 추정)	배우는 학생들은 성인과 현인의 도를 구하고 솔개는 하늘에서 유유히 날고, 물고기는 연못 속에서 뛰고 있다.	주자시
6곡	O 6곡 대은병(大隱屏)	주자 무이산의 은병봉(隱屏峯), 율곡 이이의 고산구곡(孤山九曲)의 거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모방	오산(梧山) 정래봉(丁來鳳)
	M 6곡 만절필동(萬折必東)	일 만번 꺾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춘기(春沂) 정순태(丁舜泰), 하정(荷亭) 조병순(曹秉順)
7곡	O 7곡 모원대(暮遠臺)	가지런히 관대를 벗어놓은 대	춘기(春沂) 하정(荷亭)
	M 확인 안됨		
8곡	O 8곡 해동무이(海東武夷)	조선의 무이산	조서산(曹西山)
	M 백세청풍(百世清風) 중류지주중류砥柱, 추정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맑고 높은 선비가 지닌 절개	후학 정순태 조병순 송각(誦刻)
9곡	O 9곡 소도원(小桃源)	이상향의 작은 별천지	춘기(春沂) 하정(荷亭)
	M 제시인간별유천(除是人間別有天)	모름지기 인간 세상의 별천지.	주자 무이도가

(Note) O: 경물(Object), M: 경구(Massage)



Figure 4. Distribution and Landscape of 2 Way Routes on Chungryu-Gugok



Figure 5. Distribution and Gok Image of 2 Way Routes on Chungryu-Gugok

된다. 또한 수로(水路) 상 경구로 구성된 구곡 또한 '춘기(春沂)' 또는 '하정(荷亭)'이 부분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일관성이나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기존 바위글씨에 곡의 명칭을 의탁(依託)한 것으로 보인다. 확인되지 않거나 추정에 의존한 곡명은 4·5·7·8곡 등이며 전체적으로는 주자와 관련된 경물 및 시어(5곡: 學求聖賢 鳶飛魚躍)와 성리학적 가르침을 담는 경구(2곡: 盈科後進 放乎四海, 6곡: 萬折必東)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제1곡 도채위경(淘採爲耕)은 “논밭을 갈아엎듯 인재들을 육성하자”라는 뜻으로 매우 전투적으로 기존 구곡과는 차별화된 경구로 인식된다.

3. 청류구곡의 배치 특성

1) 전남에서 확인된 2중 구조의 단거리 구곡

2013년도까지 전라도권에서 실체가 확인된 구곡은 전라북도의 변산구곡(부안), 무계구곡(무주), 이산구곡(진안), 용호구곡(남원) 등 4개 구곡이었으나 전라남도에서는 구곡의 존재가 알려진 바 없음을 고려할 때, 청류구곡을 포함한 동악산 소재 3개 구곡은 지금까지 전남지역에서 실체가 확인된 구곡이다. 특히, 청류구곡은 경물과 경구(주제어)가 육로와 수로에 대응하며 쌍을 이뤄 설정된 특이한 형태로 주목된다. 육로를 따라 설정된 구곡은 입석으로 이루어진 지표성(指標性)이 큰 암석에, 경구로 구성된 수로의 구곡은 계곡의 기반암 암상을 활용하였다. 청류구곡의 총 연장길이는 약 1.2km이며 평균 곡간 거리는 149m로 계상됨에 따라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우수한 구곡과 비교할 때 연장거리가 현저히 짧은 특징을 보이는 바 이는 산지성 하천에 구곡이 설정된 관계로 판단된다.

2) 유불선이 혼재된 문화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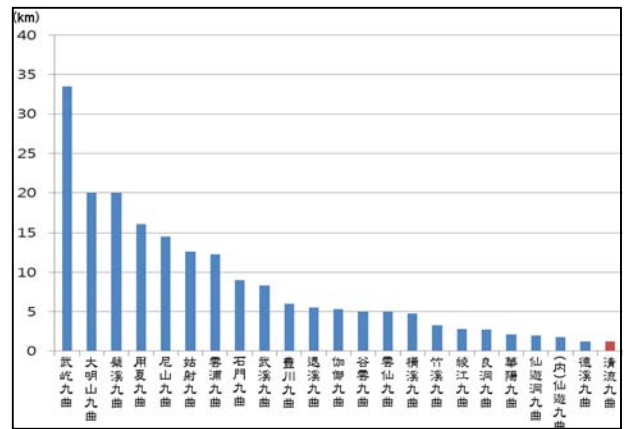


Figure 6. Span Distance Gugok in Mt. Dongak Compared with All over the Country' Gugok

Source: Gokseong-Gun(2014): p21.

청류구곡의 바위글씨는 성리학적 가르침을 담는 경구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주자 관련 시와 경구로 구성되어 있다. 청류구곡의 중간 지점인 제5곡은 신라 무열왕 7년(660)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도림사와 지근거리이다. 그리고 육로상의 제7곡 모원대 인근 바위에는 원효조사(元曉祖師)를 비롯한 총 12명의 고승명(高僧名)이 두 면에 빼곡히 종서로 새겨져 있어 이곳이 도림사 뿐만 아니라 도림사와 같은 시대에 창건되었으며 20여 년 전에 폐암(廢庵)된 것으로 알려진 길상암(吉祥庵) 그리고 인근의 신덕암 등 관련된 고승의 불법과 계보를 있는 거점 수행처로서의 기능을 암시케 한다. 더불어 인근에는 후일 불문에 귀의하여 설잠(雪岑)이라는 법명을 사용하였고 결국 무량사(無量寺)에서 입적한 매월당 김시습과 연관된 '김청한자소유처(金淸閑子逍遙處)'라는 바위글씨가 보인다. 이와 같은 도승들의 이름은 인근 원계구곡 제4곡에서도 발견되

Table 3. Persons are Related to Letters Carved on the Rocks

구분	바위글씨 등장인물	생몰연대(이미지)	관련 바위글씨 및 활동 내용	
1곡	현감 정기증(鄭基曾)	순조15년(1815)	-조선 후기 지방관 전라도 곡성현감, 1871[신미(辛未)]	
3곡	주연(珠淵): 조선 제26대 왕 고종(1852~1919)		-영조의 현손인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로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익종비 조대비의 전교로 입궐 즉위함 -고종34년(1897) 8월에는 국호를 대한, 연호를 광무(光武)라 했으나 노일전쟁에서 일본 승리 후, 일본의 강압을 받게 됨 -일본의 협박으로 황태자(순종)에게 양위한 후 퇴위, 황제로부터 태황제(太皇帝)의 칭호를 받고, 덕수궁에 기거하다가 일본의 간계로 독살 -주연서우석어당(珠淵書于昔御堂: 고종이 덕수궁 석어당에서 씀) 바위글씨 등장인물	
	정월당(靜月堂)	僧 靜月(19C)	-남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바위글씨 주체	
4곡	승정황제: 명나라 의종(毅宗), 주유검(朱由檢, 1611~1644)		-비례부동(非禮不動), 승정황제 어필의 주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조선후기 인조 때 민정중(1628~1692)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명나라 의종의 '비례불동'이라는 글을 구하여 1671년에 송시열에게 전함. 이 글을 보고 송시열은 의종이야말로 예(禮)를 지켜낸 최고의 군주로 칭송, 존명사대주의 사상에 열렬했던 송시열은 '비례부동'이라 화양구곡 제5곡 침성대 석벽에 새김	
	기로서(奇蘆沙)	노사(蘆沙) 기정진(奇定鎭, 1798~1879)	-조선 후기의 학자. 일생동안 고고하게 은둔한 현인 -송대의 주돈신·장재·정이·주희 등의 성리학을 독자적으로 연구 -서경덕·이황·이이·이진상·임성주와 함께 조선성리학의 6대가로 일컬어지는 위정척사운동자	
	송사(松沙)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회일(會一), 전남 화순 출신. 기침봉으로 불림. 호남에서 이름에 높았던 참판 노사의 손자로서 학업을 이어받아 일찍이 문유(文儒)로 추앙받음 -호남 유림의 중심점으로 1896년에는 단발령과 아관파천에 항의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호남의병대장으로 추대됨 -1908년 2월 순천 조계산에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였다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 후 해산, 은둔함.	
홍선대원군	석파(石坡) 이하응(李晙應, 1820~1898)		-자는 시백(時伯), 시호 현의(獻懿),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부친으로 세간에 대원위대감(大院位大監)이라 불림 -1861년 단심대 와곡(臥瀑)에 "청류수석 동악풍경(淸流水石 東樂風景)"이라 씀 -세도정치를 분쇄해 쇠락한 왕권을 다시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외세에 대처할 실력을 키워 조선을 중흥할 혁신정착을 강력히 추진	
5곡	남파(南波)	박재규(朴在圭, 1857~?)	-남파유적(南波遺跡)의 '波'는 '坡'의 오기(誤記) -밀양이 관(貫)이고 전남 나주에서 1출생, 학덕을 갖춘 인물로 여러 고을을 맡아 다스림	
	서산(西山)	조형일(曹衡鎰, 1800~1860)	-서산강론(西山講論)의 주체 -하정 조병순의 조부	
7곡	김청한자소요처(金淸閑子逍遙處): 매월당 김시습(1435~1493)		-본관은 강릉.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梅月堂)·청한자(淸寒子)·동봉(東峰)·벽산청은(碧山淸隱)·취세옹(贅世翁), 법호는 설잠(雪岑), 서울 출생 -26세 때인 세조6년(1460년)에는 관동지방을 유람하여 지은 시를 모아 『탕유관동록(宕遊關東錄)』을 엮었고, 29세인 1463년 호남지방을 유람하여 『탕유호남록(宕遊湖南錄)』을 엮음 -홍산 무량사에서 1493년(성종 24) 59세의 나이로 병사, 유해는 불교식으로 다비(荼毗)를 하여 유골을 모아 그 절에 부도로 안치함	
8곡	조서산(曹西山)	서산(西山) 조형일(曹衡鎰, 1800~1860)	-자는 잔주(縉周), 창녕인. 효우가 독실하여 향리에서 추앙하고 칭송함 -돈독하고 후하며 두루 신중히 하여 부모의 뜻과 몸을 봉양하고 학문을 좋아하되 저술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음. 경서와 사서를 가르쳐 성취하였으며 벼슬은 장사랑(將仕郎)을 지냈음	
	동강(東岡)	동강(東岡) 김진호(金晉護, 생몰미상)	-진유(晉澍)의 아우 -친품이 순수하고 마음을 성리(性理) 연구에 전념하여 손을 책에서 놓지 않았음	
8곡	전간재(田良齋):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		-전라북도 전주 출신, 본관은 담양 자는 자명(子明), 호는 구산(丘山)·추담(秋潭)·간재(良齋) -순종2년(1908년)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왕도도·군산도 등으로 들어가 나라를 망하더라도 도학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결심, 학문에 전념함 -1912년 계화도에 정착, 계화도(繼華島: 중화를 잇는 섬)라 부르면서 저술과 제자 양성에 힘씀 -성리학 연구 업적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유학사상을 그대로 실현시키려 한 점에서 조선조 최후의 정통 유학자로서 추앙받음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삼선생 장구처(三先生杖履處)		-본관은 은진. 자는 화옥(華玉), 호는 연재(淵齋)·동방일사(東方一士.) -대전시 회덕 출생. 송시열의 9세손 병순(秉詢)의 형 -1885년 무주 설천면 구천동 산 속 불가에 서벽정을 짓고 무계구곡을 설정, 도학을 강론에 몰두 -1905년 국권을 강탈당한 데 대한 통분으로, 황제와 국민과 유생들에게 유서를 남겨 놓고 자결
	정소송(鄭小松)	小松 鄭在健 (1843~1910)	-송강 정철의 8대손으로 1843년 입면 약천리에서 출생 -고종25년(188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병과 1위로 문과에 급제, 지평을 지냄 -고종31년(1894) 시국이 혼란해짐을 보고 사직, 고향에서 학문을 닦음 -옥과곡성이 함군(含郡)되어 향교가 폐쇄되자 근내 유생들을 모아 반대 상소를 했으나 실패 -융희4년(1910) 한일합방이 되자 나라의 운명을 한탄하고 자결	
	황매천진사장구처(黃梅泉進士杖履處): 매천(梅泉) 황현(黃鉉, 1855~1910)		-조선 후기의 우국지사인 학자 -전라남도 광양 출신으로 구례에서 독서와 함께 시문짓기와 역사연구·경제학 공부에 열중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피탈이 되자 국치를 통분하며 절명시 4편을 남기고 음독 순국 -『매천야록(梅泉野錄)』은 한국 최근세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됨 -매천의 생애는 우국이라는 줄기찬 거표를 내세운 시인으로서 유가(儒家)로서의 온건한 뜻과 개혁의 진취성에 발을 맞춘 애국자	

이상 자료는 <http://culture.jeongeup.go.kr>, <http://encykorea.aks.ac.kr>, <http://www.aks.ac.kr>를 중심으로 재구성함

는데 다른 구곡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모원대 전면의 계곡에는 조장(鳥葬) 풍습의 유물인 돌확도 발견되고 있다. 중국 복건성 무이구곡의 제8곡 북쪽에는 품자암(品字巖)으로 회자되는 품(品)자 모양의 삼교봉(三敎峯)이 있는데, 이는 유불도 삼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자의 무이정사, 불가의 극락국, 도가의 도원동으로 해석된다. 청류구곡에서도 제8곡 인근에 ‘암서재’와 ‘포경재’ 등 유교적 개념의 재실건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도원, 무태동천(無太洞天), 청류동, 신선동문(神仙洞門) 그리고 제시인간별유천 등의 바위글씨는 선계지향의 특성이 다분하다. 또한 인근 서계동에 설정된 선암동문(船巖洞門)과 계곡 상류 상봉(上峰)에 놓인 ‘신선바위’는 이러한 특징을 보다 부각시키는 경관요소가 되고 있다.

3) 탁월한 유가미학적 바위글씨의 집결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명인들의 명구들이 망라된 청류구곡의 바위글씨는 유가미학적 정신이 반영된 상징적 의미를 표출함은 물론 예술성 또한 탁월한 예술문화경관의 보고이다. 우리나라 구곡 중 가장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화양구곡(명승 제110호)에 우암(尤庵)의 신념을 상징하는 문구를 새겨 넣는 등 암각자만 121건으로 전국 단일 구곡 가운데 가장 많다고 알려진 바 있으나 이는 인명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로 보기 곤란하다. 동악산 구곡에서 확인된 단일 바위글씨 수는 청류구곡에 109건의 바위글씨가 분포한다. 이는 경남 거창 수승대(搜勝臺) 거북바위와 함께 국내 바위글씨의 최다 밀집지이다. 청류구곡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갖는 다수의 바위글씨는 유가미학이 표출된 유가미학적 문화경관이

라 할 수 있다.

4) 다양한 유형의 장구지소(杖履之所) 밀집지

Table 3은 청류구곡에 직간접 흔적을 남긴 인물 및 관련 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청류구곡은 특별한 인물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동안 장소 전승이 이루어진 곳으로 명소(名所)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도립사계곡 뿐만 아니라 동악산에는 다수의 장구소가 설정되어 있다. Gokseong-Gun(2014)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가 확인된 장구지소(杖履之所)⁴⁾는 총 87건으로 이 중 경남이 37개소(43%), 전남이 25개소(29%), 경북 14개소(1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의 경우 25개소 중 21개소가 동악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류동에는 12개의 장구지소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8곡에 형성된 장구지소의 유형으로는 장구처가 11개소로 월등히 많고 유석처, 소요처가 1개소씩 분포하며, 1인 단독의 장구처가 2개소, 2인 추념 장구처가 3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추념인물 중 승려를 제외하고 매월당 김시습(1435~1493)만이 15C의 인물이며 나머지는 17C 이후에 활동한 인물로 분석된다. 한편 ‘기노사·송사선생 장구처’와 ‘전간재·송연재선생장구처’ 그리고 ‘정소송·황매천선생장구처’는 청류구곡과 원계구곡에서 공히 발견되는 매우 주목되는 현상으로 이들의 직간접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청류구곡에서는 불교계의 대표적 선승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도립사 또는 길상암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류구곡은 항일운동가 등 선현 장구지소가 다수 설정된 것을 볼 때, 오래전부터 명인들의 산수탐방과 은거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4. List of Jangguchur(杖履處) on Chungryu-Gugok

곡 구분	장구처명	추념인		유형	추념인수
		인물	성격		
4곡 단심대	기노사 송사 양선생장구처(奇蓋沙 松沙 兩先生杖履處)	노사 기정진(1798~1879) 송사 기우만(1846~1916)	유학자	장구처(杖履處)	2
7곡 모원대	원효조사의상대사윤필거사도선국사지환대사남파대사눌봉대사영산대사허주선사 편월대사용산대사춘봉대사유석처	원효대사(617~686) 등	승려	유석처(留錫處)	12
	김정한자소요처(金淸閑子逍遙處)	매월당 김시습(1435~1493)	문인·승려	소요처(逍遙處)	1
	정토현 지곡 난곡 송곡장구처(丁土軒 芝谷 蘭谷 松谷杖履處)			장구처	4
	이십재·강연재·이차암·류송계·신개석·조명곡·오구암·조위당장구처(李心齋 姜蓮溪 李處菴 柳松溪 申介石 趙明谷 吳懼菴 趙韋堂杖履處)			장구처	8
8곡 해동무이	조서산 동강장구처(曹西山 東岡杖履處)	서산 조형일(曹衡鎰, 1800~1860) 동강 김진호(金晉漢, 생몰미상)	유학자	장구처	2
	운곡 모곡선생장구처(雲谷 慕谷先生杖履處)			장구처	2
	조화암 장구처(曹華菴 杖履處)			장구처	1
	정관재 장동 창덕 회암 대궐장구처(丁觀齋 牆東 昌德 希菴 大宮杖履處)			장구처	5
	신문재 유궐 명현 덕규 성궐 선암 성소 장구처(申文齋 有口 明軒 德奎 性口 善菴 性所杖履處)			장구처	6
	전간재·송연재·정소송·삼선생장구처(田良齋 · 宋淵齋 · 鄭小松 三先生杖履處)	간재 전우(1841~1922) 연재 송병선(1836~1905) 소송 정재건(1843~1910)	유학자 독립운동가	장구처	3
	황매천진사장구처(黃梅泉進士杖履處)	매천 황현(1855~1910)	유학자	장구처	1

4. 청류구곡의 의미론적 특성

1) 기호사립의 도통의식 계승 현장

구곡의 명칭 및 바위글씨를 통해 볼 때 청류구곡은 기호사립 학자들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기호사립의 구곡 설정 이유는 도통계승(道統繼承) 즉, 자연에의 표상화된 학통 계승의식의 일환으로 구곡 설정이 이루어졌다⁵⁾. 이런 관련성은 청류구곡과 유사한 시기에 설정된 충북 제천의 용화구곡에서도 발견된다. 용화구곡 설정자 박세화 또한 유사한 시대사조에 부응 병진한 정통 도학사립으로, 동악산에 흔적을 남긴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와도 교유하였다. 또한 청류구곡 설정자 중 한 명인 춘기(春沂) 정순태(丁舜泰, ?~1916)는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과도 교유하였다(http://people.aks.ac.kr). 이외에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연제(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⁶⁾ 그리고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 등 조선말기 사람 또한 지역 유림인 청류구곡 설정자 등과 교유하면서 성리학의 도통의식을 계승하고 위정척사와 항일의지 고취의 수단으로 청류구곡 경영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송시열의 9대손인 송병선은 무주구천동에 은둔하면서 무계구곡을 설정한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총 112개소로 집계된 청류구곡 바위글씨의 속성 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이 경구를 통한 '수신'의 의미를 담은 바위글씨가 49점(43.8%)으로 가장 높았는데 Rho *et al.*(2012) 등이 연구한 '정읍 상두산'에 분포한 바위글씨의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인명' 21건(18.8%), '경물' 16건(14.2%), '장구처 등 장구지소' 12건(10.6%)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구(詩句)'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6건(5.4%)으로 나타났다.

2) '위정척사', '존왕양이' 사상의 고취현장

존왕양이⁷⁾는 유교의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가담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 1819~1891) 등으로 모두 성리학자 출신이다. 조선시대 존왕양이 사상은 기존의 화이사상(華夷思想)에서 주장해 오던 틀과는 달리 자주사상으로 발전하여 한민족의 역사의식을 크게 고취시켰으며 전통적·보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의병활동과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다. 청류구곡 제2곡인 무태동천 바위글씨가 있는 석벽 하단의 '선사어제' 바위글씨는 "조선의 역사와 임금을

을 보위한다"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특별히 집자(集子)하는 수고를 들여 각(刻)한 것을 볼 때 비중 있는 인물이 글씨 주체임을 예상하게 한다(Figure 7 참조)⁸⁾. 조선 말기의 존왕양이 사상은 기존의 화이사상에서 주장해 오던 틀과는 달리 자주사상으로 발전하여 한민족의 역사의식을 크게 고취시켰으며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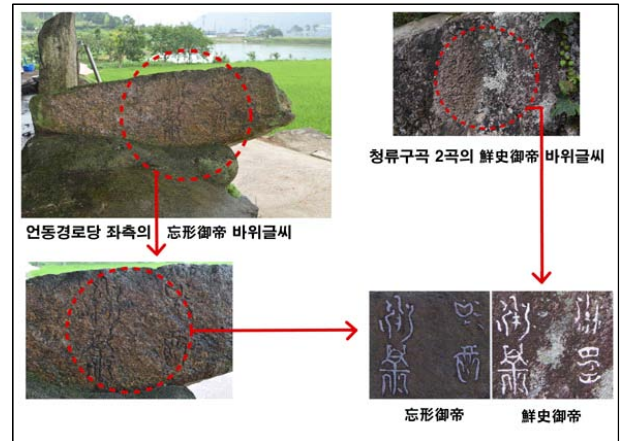


Figure 7. Comparison of Manghyungaehji and Sunsaeahji source: Park, 2010: 127 reconstitution

적·보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의병활동과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다.

'망형어제'가 새겨진 바위가 잉어의 형상을 한 것도 주목되는 바 이는 '이씨왕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망형(忘形)'은 형(形) 즉 몸을 버리고 지(志) 즉 뜻을 받든다는 의미이며, '어제'는 '임금의 마부를 뜻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와 임금에 충성하자'는 구호로 해석된다. 언동마을 김□□(82세) 용은 이 글씨가 '임금이 전한 글씨'로 진술한 바 있다. 청류구곡 제2곡의 '선사어제' 좌우에는 우측에 송석(松石) 이중희(李重禧), 오강(梧岡) 김정호(金正昊), 청류구곡 설정자인 춘기와 하정 등 총 17명의 인물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일종의 결의를 다지는 인명부로 추정된다.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의 경기도·충남북·전남 북 지방과 강원도 지방에 구곡을 설정이 어느 시기보다 많았다. 특히 화서학맥 인물들은 도통 계승의지를 강화하고, '척사위정', '존화양이' 사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항일의지를 고취 심화하기 위해 화양구곡을 순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는 일제강점기에 기호사립들이 '소중화(小中華)', '존화양이', '위정척사' 사상을 강화하는 교육장소로 구곡을 설정, 활용하였다는 학설이 비중 있게 제기된 바 있다. 즉 조선 말~일제

Table 5. Content Division of Letters Carved on the Rocks

구분	수신(修身)	축원(祝願)	경색(景色)	경물(景物)	시구(詩句)	장구소 등	인명		기타	총계
							시사계원	불교인		
해당수(%)	49(43.8%)	2(1.8%)	2(1.8%)	16(14.2%)	6(5.4%)	12(10.6%)	19(17.0%)	2(1.8%)	4(3.6%)	112

강점기 화서 계열 기호사립이 설정한 구곡은 벽계구곡·금계구곡·백운구곡(이상 경기도), 주산구곡(황해도), 옥계구곡·용하구곡·명도구곡(이상 충북), 무계구곡·이산구곡(전북), 니산구곡(강원도), 석계구곡(평남) 등이 전해지고 있다(Lee, 2013). 청류구곡 설정자 중 한 명인 조병순 가문은 집의 상량문 연호(年號)를 ‘공부자(孔夫子)’로 쓸 만큼 철두철미한 위정척사론의 실천자였음에서도 이러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청류구곡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곡성 향토사학자 박혜범의 저서와 진술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류구곡에서 활동 흔적이 확인된 조선 후기 사림계층은 주자 성리학의 도통의식을 계승하고 ‘위정척사’와 ‘존왕양이’, 더 나아가 ‘항일의지 고취’ 수단으로 구곡을 설정하고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특정 바위글씨의 존승

구곡은 구오(九五)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임금의 자리[天子]’를 말하는 동시에 만물이 각각 기능과 역할을 다해 원만하고 활발하게 작용함으로써 천하를 으뜸으로 잘 다스리는 상황을 표현한 괘(卦)이기도 하다(Lee, 2014: 44). 청류구곡에는 앞서 고찰한 선사어제 바위글씨 이외에 조선 고종(재위기간: 1863~1907)의 어필로 전하는 바위글씨가 또 있다. 즉 청류구곡 제3곡 대천벽 석림 아래에는 ‘보가효우 청류동’이란 바위글씨는 좌우로는 ‘주연서우석어당(珠淵書于昔御堂)’이라 표기되어 있는 바(Figure 8), ‘주연(珠淵)’은 고종황제의 호이며 ‘석어당(昔御堂)’은 덕수궁에 있던 고종의 집무실을 뜻한다. 또한 이 글씨 아래로 ‘상(上) 자(字) 위에 꽃잎으로 보이는 문장이 보이는 바 Park(2010: 46)은 이를 오얏꽃(자두꽃) 즉 이씨왕조를 상징하는 아이콘(icon)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는 밑에 ‘광무오년(光武五年)’이란 연호로 보아 1905년 각자되었을 확률이 높다. ‘보가효우’는 ‘보가지본막여효우(保家之本莫如孝友)’의 준말로, “집안을 보전하는 근본은 아버지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청류동 제2곡의 바위글씨는 청류구곡 설정자인 하정의 서실(書室)이기도 했던 이이재(怡怡齋)⁹⁾ 대청에 계판된 현판의 ‘보가효우’와 “주연서우석어당” 내용을 집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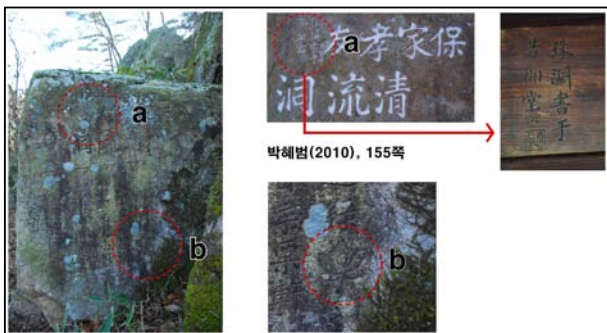


Figure 8. Bogahyowoo, Letters Carved on the Rocks in Chungrygu 3Gok

따라서 ‘이이재’와 ‘보가효우’의 본 뜻은 서로 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고종의 어필 보가효우는 을미사변 이후 1895년에서 1900년 사이 도승지를 지냈던 당시 궁내부특진관(고종황제의 고문)¹⁰⁾ 윤용구에게 전해졌고, 이를 하정 조병순 등이 청류구곡에 각자한 바위글씨로 추론된다. 그리고 제2곡에 새겨져 있는 사무사 글씨(Figure 9)는 그 위로는 320cm×210cm 크기의 지붕을 갖는 보호각(保護閣) 초석(礎石)의 흔적으로 보아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바위글씨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필이 아니더라도 매우 존송되는 인물의 그것이며 동악산 바위글씨 중 가장 예술성이 탁월한 것으로 회자된다. 사무사는 ‘논어, 위정편’의 글(子曰 詩三百一言以蔽之曰 思無邪)로서 “조금도 그릇됨이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경기도 가평 조종암(朝宗巖)에도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 글씨 ‘思無邪’가 전해진다. 즉, 청류구곡 ‘사무사’는 백성을 덕망으로 이끌며, 그릇됨 없이 정치를 펼쳐야 함을 일컫는데, 고종황제 어필로 알려져 있으며 밑으로 오현(梧軒) 조병식(曹秉湜: 실제 曹秉然)을 비롯하여 13명의 명단이 각자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류구곡에 새겨진 고종 어필로 전해지는 바위글씨의 존송(尊崇) 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정척사와 존왕양이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Figure 9. Samusa, Letters Carved on the Rocks in Chungrygu 2Gok

지금까지 살펴 본 고종 어필 추정의 바위글씨는 금석문 분야 전문가의 추가 고증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고종의 어필로 믿고 추앙했으며 ‘존왕양이’의 정신을 배양했다는 점이다.

IV. 결론

곡성 동악산 일원에 분포하는 3개 구곡 중 완성도와 경관적 보존가치가 높은 도립사계곡의 청류구곡을 대상으로 구곡 배치 형태 및 의미론적 특성을 규명할 목적으로 시도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악산 청류구곡 일원은 폭포와 담(潭), 소(沼) 등 아름다운 계류를 따라 암반경관과 성리문화의 전형으로 향유되어 온 구곡문화가 실증적으로 대입된 사례인데, 1872년 곡성현

지방도에서 “삼남제일암반계류 청류동(三南第一巖盤溪流 清流洞)”으로 명기된 바와 같이 풍치가 탁월한 승경처임을 보여준다.

둘째, 경물과 경구가 육로와 수로에 쌍으로 설정된 차별적 배치 특성을 갖는 청류구곡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이전에 정순태와 조병순의 주도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리학자들은 물론 불교지도자, 독립운동가 등 선현들의 장구지소와 유상처 등이 다수 설정된 것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명인들의 산수탐방과 은일처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도립사계곡의 기반암 암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류구곡은 총 길이 약 1.2km, 평균 곡거리 149m로 산지형 하천에 형성되어 국내 여타 구곡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증된 청류구곡 등 동악산 3개 구곡의 바위글씨는 총 165건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바위글씨의 집결지로 판단된다. 특히, 112개소로 집계된 청류구곡 바위글씨의 분석 결과, 경구를 통한 ‘수신’의 의미가 49점(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명’ 21건(18.8%), ‘경물’ 16건(14.2%), ‘장구처 등 장구지소’ 12건(10.6%) 등의 순이었으며 ‘시구(詩句)’가 차지하는 비율은 6건(3.6%)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육로상의 제1곡 쇠연문과 수로상의 제9곡 제시인간 별유천(除是人間別有天)은 박세화(朴世和)가 충북 제천에 설정한 용하구곡의 제1곡 홍단연쇄(虹斷煙鎖)와 제9곡 제시인간 별유천과 일치하는 것으로 동일한 시원(始原)을 갖는 구곡명으로 유추된다. 또한 육로상 제6곡 대은병(大隱屏)은 주자의 무이구곡 5곡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곡원림의 거점으로 인식되며, 7곡과 8곡 사이의 ‘암서재(巖棲齋)’와 ‘포경재(抱經齋)’ 바위글씨와 석축 등은 무이구곡 은병봉 아래 무이정사와 비견되는 것으로, 기호사림의 청류동 활동거점의 흔적으로 파악된다.

여섯째, 선사어제, 보가효우(고종), 사무사(명나라 의종), 백세청풍(주자), 청류수석 동악풍경(清流水石 動樂風景, 홍선 대원군) 등 명인들의 명구들이 망라된 동악산 구곡 권역의 바위글씨는 유가미학을 표출함은 물론 의미론적 상징문화경관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청류구곡은 수심양성을 위한 유가적 가치체계와 불교 및 도교적 관념 등이 공존하는 유불선 3교 문화경관의 결집체로 여타사례와 차별화된 정체성을 갖는다.

일곱째, 청류구곡은 최익현, 전우, 기우만, 송병선, 황현 등으로 대변되는 조선 후기 사림계층이 성리학의 도통의식을 계승하고 ‘위정척사’와 ‘존왕양이(尊王攘夷), ‘항일의지 고취’ 등의 수단으로 설정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항일 역사문화 항쟁의 거점으로서 장소성과 의미론적 특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곡성 동악산에 설정된 3개 구곡 중 가장 보존상태가 좋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청류구곡을 중심으로 구곡 설정의 형태적·의미론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아쉽게도 청류구곡 관련 구곡시가 없는 상황에서 문헌과 인터뷰 그리고 바위글씨에 의존하여 구곡을 추정하였으나 몇몇 곡은 연구자의 견해일 뿐 별도의 문헌 발굴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인근의 원계구

곡 및 고반동구곡의 설정자 및 관련 인물 등과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주 1) 청류구곡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Park(2007·2010)으로 그는 도립사계곡의 구곡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바 있다. 그는 육로상에 설정된 제1곡 쇠연문을 비롯하여 제9곡 소도원까지의 청류동 구곡의 존재 및 설정자를 추정하고, 동악산 항일독립운동사와의 관련성과 그 근거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그가 밝힌 육로상의 구곡과 더불어 수로상에 설정된 구곡의 실제 위치와 구곡 설정 및 배치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하고, 국내 유사 구곡과 비교 고찰하는 한편 청류구곡의 존재를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학술적 관점에서 구곡 설정의 사유에 대한 논거 제시 및 의미론적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 주 2) 조선 후기 시인으로 자는 재화(再華)이고, 호는 춘기(春沂)·학포(學圃)이다. 본관은 나주이고, 출신지는 전남 곡성이다. “절개를 지키는 일에 의의를 두지 않았으며 소절(小節)에 국한되지 않고 부귀함을 바라지 않았으며, 「맹자(孟子)」 「옹어장(熊漁章)」 읽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장황하게 말을 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피하였다.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목적을 던졌다. 술을 좋아하여 마시면 시를 읊으면서 스스로를 완적(阮籍) 등 죽림칠현(竹林七賢)에 비견하였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과 교유하였는데, 경서(經書)를 논하고 시에 대해 담론하다가 헤어질 때면 정이 더욱 두터워져 의협(義俠)의 풍취가 있었다”고 전한다(<http://people.aks.ac.kr>).
- 주 3) 「곡향토지리지」에 본(本)은 창녕으로 「수비(豎碑)편」에 병순 불망비(曹秉順不忘碑), “석곡면(石谷面), 능파리(凌波里)에 있다. 위암(韋菴) 장지연(張志淵)이 명(銘)을 지었다.”고 기술되고 있다. 또한 동책 「문행(文行)편」에서는 “자가 선일(善日)이고 호가 하정(荷亭)으로 괴천(槐川) 필승(弼承)의 아들이다. 부모를 섬김이 효성스럽고 자식을 가르침은 엄하였다. 아우 병흥(秉欽)과 함께 송사(松沙)의 문하에서 학문을 하였다. 해관(海觀) 윤용구(尹用求)가 그 집에 편액(扁額)을 걸기를 구하여 ‘이이당(怡怡堂)’이라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http://www.shinjongwoo.co.kr>).
- 주 4) ‘장구(杖屨)’란 사전적인 정의로 선현들의 ‘지팡이와 신발’이란 뜻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면 당연히 지팡이와 신발이 수반되기 때문에 생겨난 장가(杖家)·장향(杖鄉)·장국(杖國)·장조(杖朝)는 각각 50대부터 80세의 연령대를 지칭하는 한자어로 지팡이와 연륜간의 상호 관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http://www.jkaptn.com>). 선인들의 자취가 깃든 ‘장구지소(杖屨之所)’로는 대현(大賢)이 태어난 곳, 살던 곳, 말아 다스렸던 곳, 강학하던 곳 등이 있으며 후손이나 제자 등은 인근에 서원이나 사당을 짓거나 비석을 세워 그 곳에 남겨진 선현의 사상이나 덕행을 후세 사람들이 본받도록 하였다.
- 주 5) 도통의식은 학문의 발전과 학파의 결속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구곡은 조선시대 도통계승의 한 양상을 산수자연에 가지적으로 표상화한 대표적 사례로 우암은 율곡 이이(李珣, 1536~1584)의 도통을 계승하고 표상화로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한역하였다. 우암은 당시 기호사람의 영수로 도통 계승의식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를 흠모한 기호사람들은 그의 도통을 계승하였다. 이런 점은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는데, 우암의 후손은 물론, 우암의 적통(嫡統)을 표방한 화서 이항로의 문하생들 대에 더욱 확산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이항로 학맥의 기호사람들은 강원·경기·전북·충남·충북 등 기호지방과 평남·황해도 지방에 상당수의 구곡을 설정하였듯이 기호사람에 있어서 구곡의 설정은 도통을 계승하려는 의지의 자연에의 표현이자, 위대한 인물에 대한 존경심의 학문적 표현이기도 하다(Lee, 2013: 256).
- 주 6) 선조들의 문집을 편찬하고, 벽사설(1870)·근사속록(1874)·동유연원록(1881)·무계만집(1889)·동강감목(1900) 등의 저술을 통해 조선 유지를 해 온 성리학 사상을 널리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외세에 대한 사상적 무장을 강화하는 한편, 1867년 옥천 이지당(二止

堂)에서 비롯된 강회활동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전국 각지를 순례하면서 동지를 규합하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일제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확대하여 국권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1877년부터 1905년에 이르기까지 20여 차례가 넘는 상소를 통해 정부의 개화정책과 일제의 침략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였다. 나라와 도(道)의 수호를 위해 결국 죽음을 선택하여 12월 30일 자결, 순국하였다.

- 주 7) 천자인 주왕을 존경하고 보필하면서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 등 사방 이민족들을 물리쳐 중원(中原)의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미이다(<http://terms.naver.com>). 1857년 일본이 미국에 의해 개항한 후 등장한, 천황을 지지하고, 서구 열강은 배척할 것을 주장한 존왕양이파들의 정견을 가리키는 뜻도 있다. 국내에서 '존왕양이' 사상이 구체성을 띠고 드러난 것은 서유럽 열강의 압력에 대한 위기의식과 병인양요 등의 직접적인 외세 침입에 직면하고서 부터이다. 당시의 양이사상은 척사사상의 한 표현이었다.
- 주 8) 구연마을 언동서당에 있었으나 현재 언동경로당 좌측에 놓인 잉어 형상의 바위에 새긴 전서체 글씨인 '망형어제(忘形御帝)'에서 '어제(御帝)'를, 구원리 도동재(道東齋)의 '선사발적(鮮史發跡)'에서 '선사(鮮史)'를 집자함으로써 일종의 '존왕양이' 운동의 양상이 전개된다. 이 사상은 유교의 위정척사사상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에 따라 양이론자들은 '양물배격론(洋物排擊論)', '양물금단론' 등을 주장하여 서양을 배격하였으며, 당시의 기존질서를 끝까지 보존하려 하였다. 이에 가담한 인물로는 이항로 이외에 청류구곡에서 발견되는 기정진, 김평묵 등 성리학자 출신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주 9) 논어 자로(子路) 28장에 이이(怡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子路問曰 何如斯可謂之士矣 子曰 切切惇惇怡怡如也 可謂士矣 朋友切切惇惇 兄弟怡怡(제자 子路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선비라 부를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절절은 절절이니, 간절하게 책선해서 권장하는 일이다. 시시(惇惇)는 친절하게 알려주어 격려하는 일이다 이이(怡怡)는 화순(和順)이니, 순순하게 화락(和樂)하는 것을 말한다. 형제는 같은 부모의 형제만이 아니라 상복(喪服)을 입는 동족을 가리킨다." 하였다.)"
- 주 10) 윤용구(1853~1939)는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의 남편 윤회선(尹會善)의 아들이며, 일제강점기 끝까지 지조를 지켜 학이 되어 천 년 만에 돌아온 은일지사로 불렸던 조선 후기 문신이며 서화가이다. 19세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REFERENCES

1. 『Shinjungdonggukyeoisungram』
 2. 『Danggukyeoji』
 3. 『Yejidoseo』
 4. 『Daedongiji』
 5. 『Gokseong-Hangtoji』
 6. Choi, K. S.(2004). Life and Wisdom Get in the Nature: Palkyung

and Gugok.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2(4): 133-138.

7. Gokseong-Gun(2014). A Scientific Investigation on the Gugok in Around of Mt. Dongak.

8.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7(1): 20-34.

9. Lee, H. J.(2009).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ongcheon in the Traditional Space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eoul Master's Thesis.

10. Lee, S. J.(2006). A study on Comments on Scenery of the Later Joseon Dynasty -Centering Around Howayang Gugog. Woori Society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14(-): 241.

11. Lee, S. J.(2014). Playground of Taoist hermit, Gugok of Goesan. Bobodam issue 14, Autumn: pp42-54.

12.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2010). Collections of Writings in Place Name Origin in Korea: Jeolla· Jeju: 465-478.

13. Park, H. B.(2007). Dochaeyikyung. Seoul Pagjong Press.

14. Park, H. B.(2010). Chungangibi Dongaksan. Pajoo Korean Studies Information(corporation).

15. Rho, J. H.(2008). A Study on the Topo-Aesthetics and Giomorphometrical Characteristics of Wuyi-Gugok in China: Focus on Comparison with GuGok in Ko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6(4): 1-11.

16. Rho, J. H.(2009). A Study on the Textuality of China's Wuyi-Gugok, the Origin of Gugok-Wonlim: Focus on the Tradition Process to Ko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6(6): 66-80.

17. Rho, J. H.(2011). Storytelling Strategy of the Picturesque Scenery Resources of Mt. Mai by Studying Isangugokg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7(1): 20-34.

18. Rho, J. H., Lee J. H., Huh, J and Kim, J. M.(2012). The Characteristics and Landscape Meanings of Letters Carved on the Rocks of Mt. Sangdu.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0(2): 1-13.

19. Rho, J. H., Shin, S. S., Huh, J. and Han, S. Y.(2014). A Study on the True Nature, Cultural-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Gugok, Dongaksan Mountain, Gokseong. Recreation and Landscape Research, 8(3): 69-80.

20. <http://culture.jeongup.go.kr>

21. <http://earth.google.com>

22. <http://e-kyujiangak.snu.ac.kr>

23. <http://encykorea.aks.ac.kr>

24. <http://map.daum.net>

25. <http://people.aks.ac.kr>

26. <http://terms.naver.com>

27. <http://www.aks.ac.kr>

28. <http://www.jkaptn.com>

29. <http://www.shinjongwoo.co.kr>

30. <https://www.cha.go.kr>

원 고 접 수 일: 2014년 11월 03일
 심 사 일: 2014년 11월 21일(1차)
 2014년 12월 03일(2차)
 2014년 12월 05일(3차)
 개 재 확 정 일: 2014년 12월 05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